해외 문예

1 퐁피두센터
2 빨래 드 도쿄에서 왕두의 전시장면
3 파리13구의 갤러리 주스 (Galerie Jousse)
4 스트라스부르그미술관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어린이들
5 셀레스타의 하천지역에 설치된 사르키스의 작품

새로운 시도로 또 다시 문화의 중심을 꿈꾸는 나라

프랑스 문화통신부 초청 미술전문가 체류프로그램을 다녀와서

김미진 | 미술비평가, 세오 갤러리 아트 디렉터, 홍익대 겸임교수

필자는 프랑스 문화통신부 초청으로 지난 2004년 말, 3주 동안 프랑스 문화공간과 관계자들을 만나는 세미나프로그램(Programme Courants du Monde 2004)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1985년부터 10여 년간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해왔었고, 그 뒤에도 가끔 출장으로 다녀오곤 했지만 이번 기회는 프랑스 문화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50개국의 문화관계자 110여 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가장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참가자는 미술관의 관장, 큐레이터, 문화정책자, 연극, 공연, 영화관계자, 도서관 종사자 등 다양한 문화 활동가들이었다. 문화정책자들을 위한 2주간의 합숙 세미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0여 명은 개인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이미 프랑스에 오기 전에 개인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프랑스 측에 미리 보내 그 분야의 관계자들과 서로의 공간소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미팅을 하는 것이다. 시각예술 부분에서는 필자와 아이슬란드 코파보그 미술관 관장, 상파울로 비엔날레 큐레이터, 캐나다 국립 대안공간 큐레이터, 리투아니아 국립갤러리 관장, 불가리아 국립갤러리 큐레이터가 한 조가 되어 개인 스케줄 이외 미술관을 비롯한 국립기관들을 함께 방문했다.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나라들의 큐레이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더욱 흥미가 있었고 3주간 같은 호텔에 묵게 되어 인간적으로도 많이 친하게 되었다. 2004년 1월부터 이 프로그램과 우리들의 개인 스케줄을 위해 코디네이터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3주간의 개인 프로그램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일정이 잡혀져 있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세계문화의 집에서 프랑스 문화통신부 외무발전위원회 유럽과 국제 담당국장 프레데릭 부이유의 초기 연설을 시작으로 문화통신부, 외교부, 세계문화의 집과 프랑스 예술진흥협회의 관계자들이 나와 각 기관의 프랑스 문화정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질문에 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 주도의 프랑스 문화정책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거의 국가가 주도해 왔고, 지금도 90% 이상 문화기관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외교정책에서 정치와 문화, 프랑스어는 일체가 되어 항상 함께 움직여 나가고 있다. 국외에서 대사관과 문화원,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며 일사분란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에 대한 일등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전파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예술진흥협회는 1922년에 창립되어 외무부와 문화통신부에 소속되면서 프랑스 문화 국제교류에 힘을 써왔다. 그리고 1959년 프랑스 문화부가 창설되고 드골 정부는 그 첫 번째 장관으로 문인 말로를 임명하였다. 앙드레 말로는 드골의 오른팔로서 수많은 문화정책을 실현했으며 특히 각 지방에 미술관을 건립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서관들을 만들면서 문화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 뒤를 이어 퐁피두센터를 건립한 퐁피두 대통령, 세계에서 제일 큰 미술관을 만들고자 루브르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지하공사 당시 유물과 유적지들이 발굴됨으로 꿈을 접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건축한 미테랑 대통령 등이 프랑스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며 오늘날까지 프랑스를 문화 강대국으로 존재하게 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전통과 보수적 맥락에서 너무나 신중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프랑스와, 다양한 문화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현재 우리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많은 부분이 프랑스를 닮고자 하는 것 같다. 프랑스를 먼저 철저히 연구한다면 결과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2

1977년에 문을 연 퐁피두센터는 파이프들이 외곽으로 드러난 독특한 건물로 그 당시에는 혹평을 받았지만 오늘날 현대미술관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고,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아이오밍 페이가 만든 유리 피라미드 출입구의 루브르 박물관은 새로운 박물관의 지평을 열고 그 역시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FRAC(지역 현대미술 컬렉션)의 활동

프랑스의 현대미술을 위한 문화정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FRAC(Fonds Regional d'Art Contemporain: 지역 현대미술 컬렉션)과 DRAC(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지방문화정책부)로 구성되는 작품소장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미술관 사업이다. FRAC은 1950년 이후의 작업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데생부터 개념미술의 프로젝트까지 수집되어 있으며, 각 미술관과 공공건물에 대여하거나 외국기관에 기획 전시로 대여된다. 이 기관은 파리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함으로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나가며 성공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에콜 드 보자르(미술대학)를 졸업한 청년작가가 첫 번째 초대 전시를 할 경우 FRAC 관계자들이 와서 현대미술의 중요한 경향의 작품일 경우 구입해 간다. 우리나라의 갓 졸업한 청년작가들이 인사동 대관화랑에서 전시하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에 현대미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FRAC은 지방 중요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수장고를 매입하고(예산 상) 예산이 허락되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기도 한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기차를 타고 20분 가량 더 가는 곳에 위치한 프락 알자스였는데 셀레스타라는 아주 작은 시골마을에 초현대식 아트센터로 건축되어졌다. 유리와 철골조로 된 현대식 건물은 중세마을의 분위기와는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디렉터인 파스칼 네부가 전체적인 안내를 해주며 수장고, 프락 알자스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1982년에 창설되고, 1996년에 셀레스타 지역에 새로운 현대식 건축물에 정착한 프락 알자스는 알자스 지역 출신의 작가들과 그 외에 소장가치가 인정된 작가들의 작품들을 수집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수장고에서 작품을 일일이 꺼내 설명해 주었는데 주로 회화, 사진이 많이 수집되어 있으며 입체

1

1 개인 연수프로그램의 참가자들
2 라 메종 후즈
3 프락 알자스의 수장고
4 프락 알자스

3

4

와 설치작업도 잘 정리되어 보관되어지고 있다. 마을에서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유리창 갤러리로 건축되어 있는 전시공간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개인전 중심의 전시를 한다. 그러나 관람객들은 보이지 않아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부분 이런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 FRAC들은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지역과의 연계프로그램에 관한 숙제가 남아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시골마을 중간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으로 문화를 수용하는 나라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스트라스부르그 현대미술관은 프락과 프랑스미술관에서 빌려온 작품들로 기획전을 하고 있었는데 전시연출이 무척 세련되어 안정된 공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학교와 연계해 어린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활발한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그에는 CEAAC(Centre Européen d'Action Artistiques Contemporaines 유럽현대미술활동센터)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역 교육프로그램과 국제전시교류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르누보 시대의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센터는 전시공간 자체를 활용한 기획전을 주로 하며 많은 관람객과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파리와 지방의 미술관과 문화센터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의 통제를 받아온 까닭에 일괄적인 수준과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 및 자유스러운 무언가가 보이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공무원 조직의 편협성 때문인지 모두 피곤하고 지친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 오래된 보수적 구조로 그들 스스로도 현대미술의 적극적인 수용에 약한 것을 인식하며 새로운 미술을 위한 변화와 자유로움을 갈망하고 있었다.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를 꿈꾸는 파리

파리에서는 그나마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국가가 문화를 주도하다 보니 사립미술관과 미술재단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 기업메세나, 후원 등의 기업이나 개인의 직접적인 문화 참여는 손에 꼽힐 정도이다. 그중 퐁다시옹 카르티에는 사립기관으로서 오래 전부터 새롭고 실험적인 미술들을 선보였는데 그나마 꾸준히 전시공간의 성격을 살려 실험적인 미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올해는 세계를 대상으로 20세를 전후로 한 작가 지망생들의 자료를 받고 심의를 하여 대규모 전시를 꾸릴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의 불모지인 파리 18구의 르 플라토 (Le Plateau, 디렉터 카롤린 부르주아 Directrice Plateau Mme Caroline Bourgeois)도 지역미술가와 국가가 새로운 미술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되었다. 르 플라토는 1983년에 창립된 파리 주변의 일 드 프랑스 지역의 프락(FRAC d'Ille-de-France)으로 이 지역의 작가와 주요작가를 중심으로 약 7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르 플라토는

1

2

1 퐁다시옹 카르티에
2 스트라스부르그미술관

2002년에 파리 18구에 전시장소를 마련하고 컬렉션과 지역작가들뿐만 아니라 비중 있고 실험적인 현대미술 전람회를 개최하여 현대미술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르 플라토를 중심으로 주변에 젊은 갤러리스트들이 운영하는 작은 화랑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매체를 다루는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어 실험적 문화단지가 형성되고 있었다. 두 젊은 기획자 니콜라스 부리요와 제롬 상스가 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와 개인 스폰서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빨래 드 도쿄(Plais de Tokyo)는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공간을 오픈하며 직장인들을 새로운 관객으로 끌어들이며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마침 우리가 방문한 11월은 후원자가 한 달 동안의 관객의 입장료를 후원해 주어 모든 관람객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미있고 적극적인 행정 발상이라 할 수 있었다. 전시장 한편에는 관객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를 해주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인화하며 전시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광경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개인 컬렉터로 출발해 바스티유 근처에 라 메종 후즈를 지난 11월에 오픈한 퐁다시옹 안토완 드 갈베르도 새로운 형태의 전람회를 선보이며, 대안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안토완 드 갈베르는 수많은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해 파리 근교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현대미술 컬렉터이다. 라 메종 후즈는 독립전시기획자를 초빙해 실험적인 전시를 해나가는 성격으로 첫 번째 기획전으로는 안토완 드 갈베르의 소장품 전시를 했으며, 두 번째 전시로는 그와 비슷한 취향의 독일 현대미술 컬렉터의 소장품전을 열고 있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 미술관으로 운영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시로는 서로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운송비와 보험료 정도로 해나가는 방법과 파리 10대학과 연계해 인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테랑 대통령이 건립한 새로운 도서관 주변인 파리 13구에 젊고 실험적인 갤러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독일, 벨기에 등 다른 나라 작가들의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만의 협회를 만들어 오프닝을 함께 열거나 소식지를 만들어 나감으로서 기존의 보수적 화랑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의해 자칫 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몇몇의 공간들의 새로운 시도는 프랑스를 또 다시 문화의 중심지로서 복귀시켜 놓게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이틀 동안은 그 동안 참관해 왔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조형예술위원회와 문화통신부에 결과를 보고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한 시기였고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상을 타고, 몇 개의 비엔날레를 개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많은 질문이 나에게 쏟아졌다. 예술에 대한 전통과 보수적 맥락에서 너무나 신중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프랑스와, 다양한 문화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현재 우리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많은 부분이 프랑스를 닮고자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동안 정책을 실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프랑스를 먼저 철저히 연구한다면 결과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